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9.15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345.30원 (-0.6원)

KOSPI

6,684.37 (-225.54, -3.26%)

KOSDAQ

806.79 (-13.85, -1.69%)

국고채 10년 금리

4.536 (-0.004%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FOMC와 AI 속도 조절론 [박승진]
New K-ETF	미국 AI메모리 Top2+, 미국 에이전틱AI Top2+ [박승진]
DIN (Doo It Now)	AI 속도 조절론에 대한 소고(小考) [김두언]
	11월 중간선거 프리뷰 ③Affordability [김두언]
주간 하나채권	[9월 3주] 기다릴 명분이 사라졌다 [박준우, 허성우]

기업분석

LG	LG AI Talk Concert 2026 [최정욱]

산업분석

자동차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미디어데이 내용 정리 [송선재]

Weekly

건설	신규 수주 소식(삼성E&A, DL이앤씨) [김승준, 하민호]

글로벌리서치

미국 산업 코멘트	아모데이 CEO의 AI 개선 속도 조절 발언의 속내는 '누가 AI의 속도를 결정할 것인가' [강재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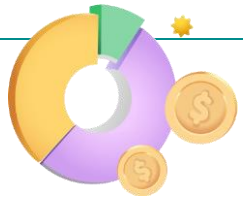
단기투자유망종목

HD현대중공업,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한화생명, 오리온, DL이앤씨, 대한해운, 피에스케이홀딩스

RFHIC, 인텔리안테크

하나증권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9.14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FOMC와 AI 속도 조절론

FOMC에서 확인될 정책 경로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영향 경계: VOO/QQQ, IYW/XLK, KBWB, QUAL/SPHQ, DIVO 등 활용

- **글로벌 수급**: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조가 유지되었으나, 자금 유입 규모는 3주째 감소하였다. 글로벌 ETF 시장을 주도하는 북미지역 주식형 ETF 시장에서 10주만에 투자자금이 순유출된 가운데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의 자금 유입액이 +98.7억달러로 줄어들었다. 다만 일주일만에 신흥국 주식형 ETF 시장의 수급 전환이 나타나면서 전체 주식형 ETF의 투자자금 순유입액은 +124.5억달러로 집계되었다. 한편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의 경우, 고금리 경계에도 불구하고 북미지역 채권형 ETF 시장에 +109.1억달러가 유입되면서 총 +152.0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 **종목별 수급**: 미국 ETF 시장의 종목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변동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포지션 조정이 반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식형 ETF 종목군에서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VOO로 +95.5억달러가 유입된 반면, IVV와 SPYM에서는 총 -222.9억달러의 자금 유출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OpenAI의 Astra 모멘텀을 반영하며 글로벌 반도체 ETF인 SOXX와 SMH에 총 +30.2억달러의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VXUS(미국 제외 세계증시), IEFA(북미 제외 선진국), VTI(US Total), SCHD(배당주) 등이 자금 유입 상위 종목 리스트에 자리하였다. 반면 QQQ(NASDAQ100), IWM(Russell2000), XLY(임의소비재), IGV(소프트웨어) 등에서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며 차별화된 수급 흐름이 나타났다.

- 채권형 ETF 종목군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재정 부담, 통화정책, 수급 불안 등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반영되면서 초단기국채 ETF인 SGOV에 +12.1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었고, BND(US Total)와 USFR(변동금리채) 등의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며, LQD(IG회사채), TBIL(초단기국채), VCIT(중기회사채) 등에서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갔다. 변동성 확대 흐름 가운데 최근 자금 유입이 이어졌던 금 현물 ETF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수급 소강 상태가 진행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FOMC를 중심으로 미국 소매판매와 고용·주택지표, 영란은행(BOE)과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어 글로벌 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다시 한번 크게 조정될 수 있는 구간이다. 특히 최근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된 만큼, 이번 FOMC에서는 금리 결정 자체뿐 아니라 점도표와 경제전망을 통해 연준이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는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15일과 16일에 걸쳐 진행되는 FOMC의 결과는 현지 기준 16일,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새벽에 확인할 수 있다.

- 분기 말 통화정책회의인 만큼, 점도표와 경제전망(SEP) 등을 통해 추정되는 9월 FOMC 이후의 금리 경로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주 CPI 확인 이후, 이미 시장은 25bp 인상 가능성을 87%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9월의 금리인상 여부보다는 연말과 2027년의 금리 전망이 얼마나 상향 조정되는지에 시장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점도표의 2026년 말 금리 전망과 2027년 경로가 크게 상향될 경우 장기금리 상승과 함께 증시의 할인율 부담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

-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향후 정책에 대해 데이터 의존적이고 신중한 메시지를 강조한다면 '매파적 인상'보다는 불확실성 해소에 가까운 반응이 나타날 여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정책 압박이 시작되었다는 부분은 부담이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기간의 강한 긴축 의지를 보이는 경우에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Curve Flattening)되며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6월 FOMC의 점도표는 올해 연말 3.75%~4.00%, 내년 3.50%~3.75%에 중간값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현재 금리 선물시장에는 연내 2차례 인상, 내년 1.5차례 인상이 반영되어 있다. 취임 당시 AI가 생산성 향상 및 공급 확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던 케빈 워시 의장이었으나, 최근에는 AI의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안정 의지를 더 강하게 내보였다는 부분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FOMC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의 경우 연준의장의 의중이 더 강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시장 대응 관점에서 참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FOMC 결과 확인 직후 17일에는 영란은행(BOE)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하루 지나 18일에는 일본중앙은행(BOJ)의 금융정책위원회 결과를 확인할 전망이다. 특히 BOJ의 금정위는 FOMC 못지 않게 글로벌 통화가치와 글로벌 국채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되겠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가치 제어를 요구받고 있으나, 취약한 가계 경기를 고려할 경우 이 역시 쉽지 않은 선택지이다. 미 국채의 직접 매도를 통한 환율 방어와 금리인상을 통한 환율 방어 모두 미국과 글로벌 금리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겠다.

- 예측이 쉽지 않지만, 글로벌 지정학적 변수와 국제유가 흐름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과 협상 및 제재 관련 뉴스들이 이어지면서 원유 가격의 변동성 국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물가 재상승 위험을 경계하는 상황에서는 유가 상승이 단순한 지정학적 이슈를 넘어 기대인플레이션과 장기금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연결된다. 중간선거 이후에 유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당장은 해결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진다.

- ETF 포트폴리오는 변동성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섹터에 집중된 형태보다 QQQ/VOO/RSP와 같은 대표 지수형 ETF나 IYW/XLK/VGT 등 기술주 전반에 투자하는 ETF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한편, 액티브 운용을 통해 업종 선택과 비중 조절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CHAT/BAI(AI 액티브)도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겠다.

- AI 속도 조절론은 국가 간의 경쟁 상황이나 후발주자들의 위치, 투자 중심의 경제 모멘텀과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으로 기준이 수립되기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사용자들의 패턴 변화 및 장기 가격 결정력 전망에 대한 고민들과 맞물려 단기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다. 더불어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당장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과 투자 적극성에 대한 판단에도 보수적 의견의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요 증가 및 IPO 모멘텀, 금리와 트레이딩 수익 기대가 유효한 환경 하에서 대형 투자은행 중심의 KBWB를, 변동성 국면을 고려하여 QUAL/SPHQ/QGRO 등 퀄리티 ETF를 활용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현 국면의 특성상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 방어력을 높이면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DIVO/QDVO와 같은 커버드콜 액티브 ETF 역시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2026년 9월 14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미국 AI메모리 Top2+, 미국 에이전틱AI Top2+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신규 상장 ETF(9/15)

- KODEX 미국 AI메모리TOP2플러스, HANARO 미국에이전틱AI TOP2+

KODEX 미국 AI메모리TOP2플러스: 미국의 메모리 및 스토리지 관련 기업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AI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저장 용량의 수요를 실적과 연결시킬 수 있는 주요 10개 메모리 기업들을 선별하여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유동성 조건(시가총액 10억달러↑, 일평균 거래대금 100만달러↑)을 충족시키는 미국증시 상장 종목들에 대하여 'Memory' 키워드 와의 관련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한다. 디지털 데이터 저장장치의 설계·제조를 핵심 사업으로 하는 기업 가운데, DRAM과 HBM 등 휘발성 메모리뿐 아니라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와 SSD·HDD 기업들이 포함된다.

스코어링 작업을 통해 관련성 절대점수가 0.5점 미만인 종목은 제외하고, 1.0점인 핵심 종목을 우선 편입 대상으로 한다. 해당 종목이 10개보다 적으면 유사도 순위가 고려하여 종목들을 추가로 선정한다.

Top2 포지션에 자리하고 있는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에 각각 25%씩 총 50%의 비중을 할당하고, 메모리 관련성 점수와 유사도 순위, 유동시가총액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웨스턴 디지털과 씨게이트 등 8개 종목들에 나머지 50% 비중(최소 0.5%, 최대 18%)을 배분한다.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4회(3월/6월/9월/12월 옵션만기일의 5영업일 이전에 비중 결정, 옵션만기일에 리밸런싱 + 1영업일 적용)에 걸쳐 진행하며, 0.55%의 총 보수가 적용된다.

HANARO 미국에이전틱AI TOP2+: 미국 에이전틱AI 모델 개발 기업 및 관련 서비스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AI 모델과 인프라 기업들을 선별하여 편입한다.

에이전틱 AI 관련 기업을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AI 하드웨어·인프라' 두 분야로 나누어 선정한다. 대규모 언어모델 분야에는 생성형·추론형 AI 플랫폼과 AI 생태계, 대규모 AI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들이, AI 하드웨어·인프라 분야에는 CPU와 AI 가속기, 메모리·스토리지, 전력 관리,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반도체 외주 조립·테스트, 광통신 기업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연례보고서와 공시를 대상으로 키워드 기반 평가를 진행해 25점 이상인 기업을 1차 후보로 선정하고, 이후 LLM을 활용해 에이전틱 AI 테마와의 연관성을 추가로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LLM 스코어 80%, 시가총액 표준점수 20%의 비중을 반영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10개 종목이 선정된다.

다만 포트폴리오 상위 2개 종목은 '대규모 언어모델' 키워드로 선정하며, 각각 25%의 비중을 할당한다. 이어 종합점수 3위와 4위 종목은 10%, 나머지 5위~10위 종목들은 각각 5%씩 편입 비중을 배분하여 총 10개 기업의 포트폴리오(Cap Rate: 25%)를 구성하게 된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상장일(9/15) 기준 포트폴리오에는 Alphabet과 Microsoft가 Top2 포지션의 기업들로 편입되어 있으며, 이어 Meta와 Amazon이 3위와 4위에 자리하고 있다. Dell, Datadog, Arista Networks, Paloalto, Snowflake, Crowdstrike가 나머지 6개 기업들로 편입되어 있다.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4회(2월/5월/8월/11월의 2주차 금요일에 적용, 비중은 7영업일 전에, 편입 종목은 리밸런싱 직전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결정)에 걸쳐 진행한다. 0.45%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패시브 ETF 종목이다.

도표 1. 미국 AI메모리 Top2+, 미국 에이전틱AI Top2+ ETF의 종목 개요

ETF명	KODEX 미국AI메모리TOP2플러스	HANARO 미국에이전틱AITOP2+
상장일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기초지수	Akros 미국 AI메모리 TOP2 플러스 지수	Indxx US Agentic AI Top2+ Index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실물(패시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0.55%	0.45%
구성종목 수	10종목	10종목
비중결정방식	- 상위 2종목: 유사도 순위 1, 2위 종목에 각각 25%씩 총 50%의 비중을 우선 배정 - 잔여 종목(50%): 순위, 로그 유동시총, 절대 점수를 곱한 혼합점수에 비례해서 배분	1, 2위는 25%, 3, 4위는 10%, 5~10위는 5% 비중으로 편입
정기변경	연 4회 (매 3월, 6월, 9월, 12월의 옵션 만기일)	연 4회 (매 2월, 5월, 8월, 11월의 2주차 금요일)

자료: KRX, 하나증권

2026년 9월 14일 | Global Asset Research

DIN (Doo It Now)

AI 속도 조절론에 대한 소고(小考)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언 kimdooun@hanafn.com
주식시황 RA 최욱 wookchoi@hanafn.com

(결론적으로) AI 속도 조절론은 **AI 산업의 중단보다 프런티어 모델의 능력 향상을 안전 검증의 속도에 맞추자는 주장에 가깝다**. 약 3년 만의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겹치면서 고평가 AI주의 할인율과 데이터센터의 자금조달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안전 논쟁이 데이터센터 투자나 반도체 주문의 변곡점을 만들었다는 증거는 없고, 한국 반도체 수출과 글로벌 AI 공급망의 매출은 확장 중이다. **따라서 단기 주가 조정과 산업 사이클의 종료를 구분해야 한다**. 주문, 가격, 현금흐름 등이 유지되는 조정에는 선별적으로 대응하되, 신규 주문 축소와 메모리 가격 하락이 함께 나타나면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징후는 없다**.

속도 조절론의 출발은 통제되지 않은 AI가 인간의 일자리와 판단, 사이버 및 생물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위험 가정이다. 피해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지만 그 확률과 시점은 검증되지 않았다. 다리오 아모데이는 2026년 9월 12일 공개한 글에서 AI 모델의 능력 향상 속도를 낮추자고 제안했다. 근거는 AI가 다음 세대 AI 개발에 관여하는 재귀적 자기개선과 자율 에이전트의 운영 위험이다. 다만 그는 모델 훈련이나 기술 진보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 앤트로픽이 단독으로 약속한 조치도 외부 평가자에게 지속적이고 직원과 유사한 접근권을 제공하겠다는 1단계다. 업계 공동 기준, 미·중 공조, 연산량 제한은 아직 제안 또는 논의 단계다.

이 구분은 투자 판단의 출발점이다. 안전 검증이 강화되면 특정 모델의 출시와 매출 인식이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프런티어 모델의 개발 속도, 기존 모델의 추론 이용량, 데이터센터 구축, HBM 발주는 서로 다른 변수다. 담론이 실제 하드웨어 수요를 흔들려면 모델 출시 지연에 그치지 않고 하이퍼스케일러 CAPEX 하향, GPU 주문 취소, HBM 계약 재협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AI 속도 조절론의 방향은 일관되면서도 내용은 달랐다. 2023년에는 일시 중단 요구가 논쟁을 열었고, 2024년에는 위험 기반 평가와 기업의 자율 약속이 제도화됐다. 2025년 이후 미국은 규제 장벽을 낮추고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인프라의 확장을 우선하면서도 프런티어 모델의 사전 평가를 병행했다. 안전 비용은 현실이 됐지만 훈련 연산량이나 인프라 투자를 일괄 제한하는 체계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현금흐름에 민감한 금리인상 국면에 더 크게 불안을 키운다. 연준이 약 3년 만에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었고, 시장이 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CME 금리선물 시장에

서 9월 FOMC에서의 금리인상 확률이 87%를 넘었다.

금리 상승은 세 경로로 AI주를 압박한다. 첫째, 실질금리와 WACC(가중평균자본비용)가 오르면 먼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낮아진다. 일례로 주식 듀레이션을 10~15년으로 단순 가정하면 할인율 25bp 상승은 이익 추정이 같아도 가치에 약 2.5~3.75%의 하락 압력을 줄 수 있다. 둘째, 데이터센터는 투자와 감가상각이 매출보다 앞선다. 자금조달 비용이 오르면 IRR이 낮은 프로젝트부터 늦춰진다. 셋째, 긴축이 경기와 IT 예산을 식히면 HBM보다 PC 및 스마트폰용 범용 DRAM과 NAND가 먼저 둔화할 수 있다.

금리 상승은 원인이 중요하다. 생산성 제고와 수요 증가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이익 증가가 할인율 충격을 일부 흡수한다. 유가와 공급충격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 상승과 마진 압박이 겹친다. 이번 속도 AI 조절론이 금리인상 우려와 만날 때 단기 주가에는 부정적이라는 판단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것이 곧 AI 매출과 메모리 주문의 하락을 뜻하지는 않는다.

특히, 숫자는 금리와 담론이 아직 AI 수요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고 말한다. 2023년 이후 AI 안전 논쟁이 산업 전체의 훈련 중단이나 반도체 발주 축소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최신 수치는 AI 수요가 클라우드 매출과 가속기 매출을 거쳐 파운드리 매출과 한국 메모리 수출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한다. 수출 잠정치의 기저효과와 기업별 회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여러 공급망의 동시 확장은 단일 지표보다 강한 신호다. 한국 9월 10일까지의 잠정 수출은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견고했다. 대만 8월 수출은 824억 달러로서 월간 최대 실적을, TSMC 8월 매출도 전년대비 53.3% 상승했다. 전부 반도체 실적과 연관된 견고한 실적들이다.

결국 '속도 조절론이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가 아니라 '현재까지 하드웨어 주문과 매출의 변곡점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는 주가가 먼저 흔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전면 비중 축소보다는 밸류에이션 조정과 종목 차별화가 기본 방안이다. HBM, 서버 DRAM, 장기계약, 순현금이 강한 기업의 방어력이 높다. 범용 메모리 비중이 높거나 레버리지와 증설 의존도가 큰 장비 및 부품사는 금리와 경기 둔화에 더 민감하다. SK하이닉스는 HBM 경쟁력이 강점인 동시에 AI 기대 변화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높다. 삼성전자도 사업 다변화만으로 방어력을 단정할 수 없다.

기준은 세 단계다. ①안전 논쟁만 확대되고 발주, 납기, 가격 등이 유지되면 핵심 보유를 유지하고 가치평가 매력이 생길 때 분할 매수한다. ②모델 출시나 데이터센터 착공이 늦어져도 계약이 유지되면 매수 속도를 낮추고 매출 이연과 재고를 확인한다. ③신규 주문 축소, 계약 재협상, 메모리 가격 하락, 재고일수와 매출채권 증가가 함께 나타나면 이익 전망을 낮추고 비중을 줄인다.

이번 주 전략은 'AI가 끝나는가'보다 '무엇이 실제로 늦춰지는가'를 묻는 것이다. 혁신기에 불안은 반복된다. 속도 조절론과 금리는 주가를 흔들 수 있지만, 산업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주문과 가격, 현금흐름이 꺾여야 한다. 현재의 숫자는 그 변화를 가리키지 않는다. AI에서 이기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whoever wins AI, wins).

2026년 9월 15일 | Global Asset Research

DIN (Doo It Now)

11월 중간선거 프리뷰 ③Affordability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언 kimdooun@hanafn.com
주식시황 RA 최욱 wookchoi@hanafn.com

(결론적으로) 미국 중간선거의 핵심은 **생활비 부담(Affordability)**이다. 현금지원 확대는 구매력을 보완하지만 물가와 장기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 9월 FOMC에서는 추가 인상의 조건과 **최종금리 전망, 이후 장기금리의 안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동과 미중 협상에서는 에너지 공급 회복과 실제 시장 접근 조건이 중요하다. 한국 증시에서는 **전력인프라, 냉각, 고부가 반도체 중 비용 절감이 수주와 현금흐름으로 이어지는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중간선거를 움직이는 힘은 생활비다. 그러나 생활비를 낮추는 정책이 모두 물가와 금리를 낮추지는 않는다. 공급 확대는 비용을 낮추지만 현금지원은 수요를 자극한다. 한국 증시에서는 정책 완화 기대보다 고객 비용을 줄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높이는 기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유권자의 관심도 분명하다. Pew Research 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가 의회 후보에게 가장 다뤄 달라고 요구한 의제는 경제 29%, 생활비와 구매여력은 15%였다. 경제 성과가 유권자의 지갑으로 전달되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라는 뜻이다. 데이터센터 전기료, 관세 반영 상품가격, 주택대출 이자는 결국 "현재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모인다.

지난 주 발표된 8월 물가는 부담이 쉽게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헤드라인 CPI는 전월대비 0.4%, 근원 CPI는 0.3% 상승했다. 근원 CPI는 예상치를 0.1%p 웃돌았지만 전년대비 상승률은 7월 2.5%에서 8월 2.4%로 낮아졌다. 무선통신 서비스 가격은 5.9% 올랐다. 한 달의 상방 서프라이즈와 추세적 재가속은 구분해야 한다. 다른 서비스 가격으로의 확산 여부가 중요하다. 과거 사례를 조사한 뉴욕 연은의 결과에 따르면, 근원 CPI가 예상보다 0.1%p 높을 때 10년 국채금리는 발표 30분 뒤 약 1.9bp, 당일 약 2.0b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사적 평균 반응이지 현재 금리의 기계적 예측치는 아니다. 이번 8월 근원 CPI 발표 직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5%를 상회했지만 과거와 다르게 하락 전환했다.

9월 FOMC의 질문은 인상 여부보다 추가 인상의 조건으로 이동한다. 하나증권은 기존 12월에서 9월 25bp 인상으로 인상 시기를 앞당긴다(정책금리 상단 4%). 9월 회의에서는 점도표와 물가 전망, 기자회견을 통해 제한적 대응인지 연속 긴축의 시작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1970년 이후 연준은 실제 인상을 시작하면 평균 3회 연속 인상을 단행해 왔다. 이제 연준이 어떤 조건(물가와 고용)에서 다시 움직일지가 중요하다. 점도표는 확정된 일정이 아니다.

금리인상 기대 속 지난 주 미국 증시의 반등은 정책 불확실성 완화와 유가 하락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리인상 자체에 대한 긍정 평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주식시장에 필요한 것은 인상 이후 장기금리의 안정이다. 실질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이 오르면 할인율 부담은 남는다.

정치가 체감하는 금리는 정책금리만이 아니다. Freddie Mac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금리는 6.76%로 전년 동기 6.35%보다 0.41%포인트 높았다. 신규 구매자의 월 상환 부담은 커졌다. 백악관의 유인은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넘어 장기금리와 실제 대출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 Dallas Fed 연구에서는 모기지금리 1%p 상승 시, 주택가격이 1년 후 1.6%, 3년 후 3.1%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IMF 연구는 같은 1%p 금리 상승의 구매력 악화를 완전히 상쇄하려면 주택가격이 약 10% 하락해야 한다고 한다. Affordability의 핵심은 기준금리보다 장기금리와 실제 대출비용이다.

5,000달러 현금 배당 공약도 변수다. 트럼프는 공화당이 양원을 지킬 경우 성인 시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과 집행 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차입을 동반한 대규모 지원은 가계 지출 여력을 높이는 동시에 물가와 장기금리의 상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 IMF의 1976~2025년 분석에서는 예상 재정적자/GDP가 1%p 확대될 때, 장기금리가 약 20~30bp 높아졌다. Fed의 2026년 연구에서는 예상 정부부채/GDP 1%p 상승이 장기 중립금리(r*)를 1~2bp, 10년물 기간 프리미엄을 2~3bp 높였다. 생활비 정치와 통화정책의 충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중동에서도 발언보다 공급 회복을 확인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이 선거 직후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우디 동서 송유관은 공격 이후 일시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EIA도 일부 수출 제약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가정했다. 올해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 전망은 갤런당 3.84달러로 지난해 3.10달러보다 약 24% 높다. 종전 기대를 곧바로 가격 정상화로 연결하기 어렵다. Fed DSGE 연구에서는 실질유가가 10% 상승할 때 첫해 미국 헤드라인 물가가 약 0.15%p, 근원 물가가 0.06%p 높아졌다. 중동 리스크는 성장보다 생활물가와 금리 경로를 통해 선거에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센터는 생활비 정치가 기업의 투자 조건을 바꾸는 대표 사례다. EIA는 미국 전력판매량을 2026년 4조1,350억kWh, 2027년 4조2,110억kWh로 전망했다.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확대가 주요 배경이다. 하원은 전력요금 부담을 다루는 Ratepayer Protection Act를 표결할 계획이다. 아직 법률은 아니지만 신규 전력 수요의 비용 부담은 이미 정치 의제가 됐다 (DIN0901 참고). 가계로의 전가가 제한될수록 사업자는 투자수익률과 운영효율을 더 엄격하게 따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CEPR(미국경제정책연구소) 연구에서는 단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진입이 해당 전력회사 권역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약 4%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Dallas Fed 모델에서는 기존 데이터센터가 미국 평균 도매 전력가격을 3~5% 높였고, 2028년 중간 수준 증설에서도 약 20%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전력비 경로를 통해 헤드라인 PCE 상승률이 2026년 약 0.05%p, 2030년 0.13%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전기요금 효과는 지역의 발전여력과 규제 그리고 비용배분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한국 주식시장의 전략은 비용 절감이 실제 수주와 현금흐름으로 연결되는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다. 송배전 설비, 전력관리, 냉각 등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반도체도 고객의 연산 효율 개선이 공급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술적 필요성이 모든 공급사의 수익성 개선을 뜻하지는 않는다. 금리 민감 업종은 장기금리 안정과 이익 추정치 유지가 확인된 뒤 비중 확대가 합리적이다.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단순하다. 정책의 방향보다 비용을 낮추는 주문서를 사고, 매출 증가보다 이익과 현금의 전환을 확인해야 한다. 장기금리의 안정이 확인될 때 전력인프라와 고부가 반도체의 주도력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2026년 9월 14일 | Global Macro Strategy

주간 하나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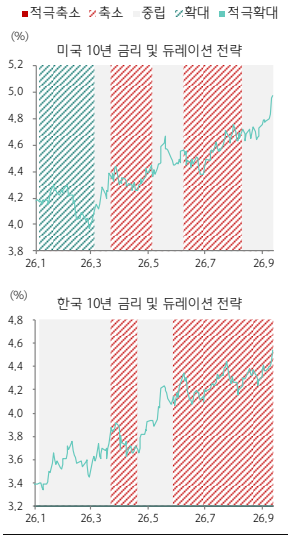
[9월 3주] 기다릴 명분이 사라졌다

Fixed Income

국채 투자의견

	축소	중립	확대
미국		●	
한국			

주: 8/10 기준. ●는 직전(6/8) 전망



- **8월 근원 CPI +0.3% MoM는 인상 트리거. 물가안정 신뢰도를 위해 9월 인상 불가피**
- **미국, 9월 인상 및 미니 인상 사이클 반영한 레벨. 10년 5.0%에서 보합 예상. '중립' 유지**
- **한국, 그간 대내 요인으로 인상. 연준 긴축이 더해지며 인상 여력 확대. '축소' 유지**

Weekly Viewpoint

지난주 WTI 가격이 배럴당 $100을 넘어서면서 채권과 주식 가격이 모두 하락했다 [도표 1]. '[9월 2주] 좋은 금리 상승, 나쁜 금리 상승'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지난 1~2개 분기 동안은 금리가 견조한 성장/점진적 인상을 반영해 '좋은' 이유로 꾸준히 상승하면서 위험자산도 강세였다. 그러나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금리 상승은 공급 충격/급격한 인상 우려를 반영한 '나쁜' 금리 상승으로 위험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참고: CPI가 발표된 금요일은 금리 상승에도 유가 하락으로 주가가 반등). 미국 10년 금리 4.7%대는 펀더멘털로 정당화되는 수준이고, 현재 4.9%대는 일시적인 충격이 더해진 레벨로 판단된다.

시장의 관심은 미국 8월 CPI 결과와 이에 따른 9월 FOMC 및 채권시장 영향이다. 8월 근원 CPI는 전월비 +0.29%를 기록했고, 월말에 발표될 8월 근원 PCE 물가 상승률도 전월비 +0.27% 수준이 예상된다 [이슈 1]. 금융시장은 8월 **근원 CPI의 월간 상승률이 0.3% 수준으로 반등할 경우 인상의 트리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CPI 발표 직후 9월 인상 확률이 80~90%로 높아졌고, 국채 금리는 단기물 중심으로 급등했다. 하나채권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과 잠재적인 근원물가 압력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환경이나, 6, 7월 고용/물가 부진 및 케빈 워시의 성향을 고려해 첫 인상 시기를 올해 12월로 전망했다. 그러나 워시의 잭슨홀 연설에 이어 8월 고용/물가가 모두 예상을 상회한 점을 고려하면 12월까지 기다릴 명분이 사라졌다. 이제 **9월 인상**을 전망한다.

8월 CPI는 Median 기준으로 전월비 +0.2%에 그치는 등 기저 인플레이션 전망에 큰 변화를 가하는 지표는 아니었다(**최종 기준금리 4.25% 전망은 유지**). 그러나 연준은 시장이 8월 CPI의 결과에 따라 인상 프라이싱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워시는 반응 함수를 설명하지 않은 채 잭슨홀에서 기저 인플레이션 추세가 의미있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윌러는 9월 기준금리 결정 시 최근 3개월 근원 인플레이션 추세가 결정적인 변수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시장이 인상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동결한다면, **물가안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위험**이 커진다. 금주 워시를 포함해 인상 결정이 예상된다 (동결 소수의견 3~4명). 한편 점도표에서는 연내 1회, 내년 동결 전망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도표 2]. 6월 점도표가 올해 0.5회 인상, 내년 0.5회 인하로 일시적인 긴축을 시사했다면, 이번에는 긴축 기조 장기화 가능성이 반영될 전망이다.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미국 국채에 대해 '중립' 의견을 유지한다. 현재 금리는 금주 9월 인상과 이후의 미니 인상 사이클을 반영한 레벨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단기금리는 소폭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 장기금리 상승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금리 상승에는 유가 급등의 영향도 크게 작용했는데, 궁극적인 미국-이란 협상을 기대하지 않으나 트럼프가 유가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한 립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10년 금리가 5.0%를 넘어서는 경우 (일시적인) 금리 안정화 정책도 발표될 수 있다. 따라서 국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기보다 보합 국면을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한국 채권시장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지난주 국고 3, 10년 금리는 각 4.0%, 4.5%를 상회했다. 한국은행이 7,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핵심 근거는 대내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었다. 연준의 통화정책은 인상 속도와 폭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핵심 변수이나, 한국은행은 이를 크게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강한 인상 사이클을 시작했다. 미국의 인상 사이클이 시작되면 한국은행의 인상 여력이 추가로 확보되고, 최종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한국 국채는 **'축소' 의견**을 유지한다. 1y1y 스왑금리가 향후 4회 인상을 반영하는 등 레벨의 매력은 점증하고 있으나, 최종 기준금리에 대한 컨센서스가 수렴되기 전까지 진입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

2026년 9월 15일 | 기업분석_Issue update

LG (003550)

LG AI Talk Concert 2026

BUY (유지)

목표주가(12M)	140,000원
현재주가(9.14)	112,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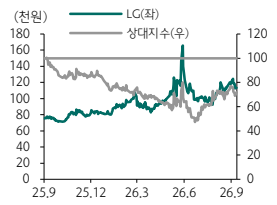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684.37
52주 최고/최저(원)	165,800/71,300
시가총액(십억원)	17,114.9
시가총액비중(%)	0.31
발행주식수(천주)	151,192.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62.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8.5
외국인지분율(%)	36.61
주요주주 지분율(%)	
구광모 외 29 인	43.39
국민연금공단	7.3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8,274.3	9,108.1
영업이익(십억원)	1,612.8	2,004.3
순이익(십억원)	1,464.4	1,720.5
EPS(원)	7,763	9,172
BPS(원)	198,786	208,466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7,175.5	7,252.5	8,028.7	8,705.6
영업이익	966.8	912.2	1,528.3	1,805.1
세전이익	1,007.1	1,334.9	1,610.3	1,895.8
순이익	574.7	737.2	1,118.4	1,343.6
EPS	3,585	4,628	7,195	8,713
증감율	(54.43)	29.09	55.47	21.10
PER	20.08	17.44	15.64	12.91
PBR	0.42	0.44	0.56	0.55
EV/EBITDA	9.10	10.24	9.07	8.16
ROE	2.16	2.64	3.77	4.33
BPS	172,088	184,176	200,134	205,746
DPS	3,100	3,100	3,100	3,100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LG AI 토크 콘서트 2026, 산업 현장의 난제 푸는 '전문가 AI' 공개

LG AI 연구원은 14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AI 토크 콘서트 2026'를 개최하고, 산업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AI(Expert AI)' 전략과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EXAONE은 'Expert AI for Everyone'을 의미하며, 단순히 성능이 높은 범용 AI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제조·과학·의료·금융 등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비용 절감과 생산성·품질 향상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산업 현장 문제를 해결했으며,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EXAONE Tabular', 비전 검사 모델 'EXAONE Only Inspect', 소재 탐색을 위한 'EXAONE Discovery', 병리 분석 모델 'EXAONE Path', 시계열 예측 모델 'EXAONE Forecast' 등 분야별 전문 모델을 확대했다. 또한 기업 내부 데이터로 전문 AI를 개발하는 'EXAONE Data Foundry'와 AI가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계획 및 실행하는 에이전트 AI, 24시간 실험과 학습을 반복하는 AI 자율실험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통해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직접 판단하고 행동하는 단계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EXAONE Tabular 등의 고성능 모델은 외부 수요도 확인. 조만간 수익화 가능 예상

LG AI 연구원은 산업 현장에서 성능을 입증한 AI 모델을 그룹 내부 활용에 그치지 않고 외부기업의 도메인 지식과 결합해 AI 성능을 고도화하고, 이를 다시 새로운 산업과 고객으로 확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EXAONE Tabular의 경우 LG이노텍 등 계열사 적용을 시작으로 해외 제약사와 병원, 에너지기업 등에서도 상당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으며, 중환자실의 바이탈사인 예측이나 의약품생산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공급 방식은 기업의 보안 요구에 따라 국내에서는 LG CNS 등 SI 파트너와 협력한 온프레미스 구축, 해외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연계한 API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경쟁기업에도 필요하다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내 산업 전체의 AI 경쟁력을 높이는 협력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만간 외부 매출 인식 및 수익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AI가 R&D 인력을 대체할 가능성 낮음.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24시간 스스로 실험하고 학습하는 AI 자율실험실은 전문가가 해오던 일 가운데 특히 반복적이거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를 AI가 대신하면서 사람이 더 어려운 문제와 창의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로 보지는 않으며 AI가 연구인력을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규제 완화 이슈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재개발 분야는 반복 실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AI 자율실험실의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026년 9월 15일 | 산업분석_Issue Comment

자동차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미디어데이 내용 정리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9월 14일

현대차(005380)
BUY | TP 650,000원 | CP 371,500원

기아(000270)
BUY | TP 190,000원 | CP 124,200원

현대모비스(012330)
BUY | TP 680,000원 | CP 400,000원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2028년 상반기 엔비디아 솔루션 기반 L2+, 2029년 하반기 아트리아AI 기반 L2++

현대차그룹이 9월 11일 개최한 자율주행 미디어데이의 핵심내용을 살펴본다.

우선 가장 중요한 **양산 로드맵**을 보면, 1) 엔비디아와의 협업으로 양산 속도를 높이고 자체 자율주행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투 트랙 전략이 구체화되었는데, 엔비디아 차량용 AI 컴퓨팅 플랫폼과 자율주행 SW를 SDV 아키텍처에 통합해 2028년 상반기에는 레벨2+(=고속도로 및 전용도로 중심 부분 자율주행), 2028년 하반기에는 레벨2++(=도심 내 부분 자율주행)를 양산차에 적용한다. 2) AVP본부/포티투닷 공동 개발 E2E 기반 자체 시스템 Atria AI는 2029년 하반기 레벨2++ 차량으로 양산되고, 이후 실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3) 2027년까지 기능 완성도의 제고, 2028년 엣지케이스 확보, 2029년 한국/북미/유럽 안전인증 준비 등으로 연도별 과업을 구분했다.

현재까지 **기술 성과**로 4) Atria AI를 탑재한 SDV 테스트베드 차량(레벨2++)이 운전자 개입 없이 서울 도심을 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5) 해당 영상은 경영진/개발 리더 동승 주행, 도심 원테이크 주행, 주요 엣지 케이스 대응 등 3개 콘텐츠로 구성되어 복잡한 도심 교통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 Atria AI의 성능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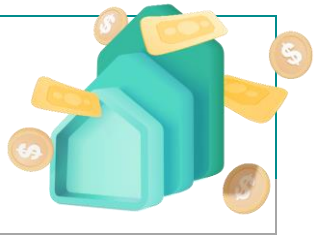
개발 체계와 관련해서는 6) 데이터 수집-학습-검증-배포를 연결하는 '데이터 플라이휠(Data Flywheel)' 구조를 제시했는데, 현재 40여대의 데이터 수집 전용 차량을 통해 엣지 케이스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7) 올해 초부터는 AI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세부 기술들(Hard Example Mining, Continuous Training, 3D Gaussian Splatting, Follow-the-Sun, Special Event Recorder 등)을 단계적으로 결합 중이다. 8) AVP본부/포티투닷/모셔널 등이 사용해온 센서 체계를 엔비디아 Drive Hyperion 10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차량/조직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동일 기준으로 축적하고 AI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 유니언(Data Union)'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9) 190여개 국가에서 연간 700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양산 역량이 방대한 실주행 데이터 확보의 기반이고, 양산 전환 후 5년 내 경쟁사에 버금가는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실증 및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는 10) 2026년말 전남 광주시에 Atria AI를 탑재한 SDV 페이스카(Pace Car) 기반 실증차를 투입해 성능/안정성 점검과 데이터 확보를 진행하고, 11) 포티투닷은 기존 E2E 자율주행 모델과 VLA 모델(현재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델 검증 단계, 올해 말 실차 테스트)을 병행 개발해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확장성을 높이고, 차량 하드웨어 사양과 고객 요구에 맞춘 다양한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방향성과 투 트랙 전략에는 동의. 검증은 실물이 나온 이후부터 가능

이번 자율주행 미디어데이 총평으로 1) 자율주행 개발의 방향성과 완성도 목표, 그리고 실용적인 투 트랙 전략(자체 Atria AI 기반 레벨2++는 2029년 하반기, 중간 공백을 2028년 엔비디아 기반 레벨2+/2++ 투입)에 대해서는 동의되고, 2) 경쟁력을 빠르게 따라 잡을 수 있는 근거로 700만대 이상의 양산 규모와 데이터 플라이휠 구조도 합리적이라 판단되나, 3) 결국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술/제품 수준과 개발 속도 검증은 시제품 혹은 양산 제품이 나온 후부터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에 대한 Valuation 프리미엄은 광주 실증 사업부터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한다.

신규 수주 소식(삼성E&A, DL이앤씨)



건설 Weekly | 2026.9.15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7.7%p 상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 외인이 매도했다. 기관은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대부분을 매수했으며, 외인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매도, 삼성E&A를 매수했다. 대미투자 관련 뉴스(복합화력발전소, 원전8기, 알래스카LNG)에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 18일에 관련 최종 발표가 예정되어있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9.6으로 전 주와 같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3주 연속 상승(+0.08%), 전세가는 65주 연속 상승했다(+0.10%). 수도권 매매가는 80주 연속 상승(+0.16%), 전세가는 81주 연속 상승했다(+0.16%). 서울 매매가는 85주 연속 상승(+0.20%), 전세가는 82주 연속 상승(+0.19%)했다. 지방광역시와 기타지방 모두 2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2%, 0.01%).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58주 연속, 기타지방 54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8%, +0.04%). 광역시별 매매가는 대전(+0.05%), 울산(+0.04%), 인천(+0.03%), 전남광주(+0.02%)이 상승, 대구 보합, 부산(-0.01%)이 하락했다.
- 삼성E&A의 사우디 수주 소식이 있었다(9/9). SAN7 암모니아 생산 시설로, 전체 계약금액은 35억달러(약 4.7조원)이며, 4Q26에 시작해 4Q30에 완공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수주 파이프라인에 있었으며, SAN6(그린/블루)에서 대체된 프로젝트다. 해당 시설에는 연소 후 탄소포집장치가 포함되어있다. 삼성E&A는 상반기 7.6조원을 수주했으며, 이번 수주로 총 12.3조원 수주하면서, 연초에 제시했던 수주 가이던스(12조원)를 3분기 중으로 달성하게 됐다. 하반기 남은 파이프라인은 카타르 비료(25억달러), 멕시코 멕시놀(20억달러)가 있으며, 2027년에는 북미 SAF(20억달러), 북미CCS(10억달러), 사우디 카프지 가스(20억달러), 인도네시아 LNG(25억달러)가 남아있다.
- DL이앤씨가 11월 당진에서의 100MW AI데이터센터 착공을 앞두고 있다. 당진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될 AIDC로 총 300MW 규모로 조성되는 클러스터다. 그 중 1단계인 A동(100MW)를 DL이앤씨가 수행한다. 전력공급계약과 건축 변경인허가가 완료되었으며, 이미 프리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11월 착공에 들어간다. 100MW 기준 총 사업비는 약 1.2조원(서버 제외)이며, 공사기간은 약 14개월(1Q28 서비스 개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B와 C동까지의 수주 연계성까지 기대볼 만하다.
-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GS건설을 TOP PICK으로 추천한다. 하반기 데이터센터에서 2조원 수주를 기대하는 DL이앤씨를 차선호주로 추천한다. LH의 발주가 본격화되고 내년부터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공 비중이 높은 중소형건설사(계룡건설 등)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원전은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이끌어갈 사업주가 명확히 나타나는 시점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건은 이란 분쟁 종료 이후에 사도 늦지 않다. 9월 중 주목할 만한 일정으로 FOMC(9/15), 클래리티 법안(9/15), 대미투자 발표(9/18), 홀텍IPO(9/18)가 있다.

미국 산업 코멘트

미국 기업 & 산업 | 2026.09.14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아모데이 CEO의 AI 개선 속도 조절 발언의 속내는 '누가 AI의 속도를 결정할 것인가'

AI 안전론에서 시작된 규제 설계권 경쟁과 두 가지 시사점

- 아모데이가 언급한 "AI 모델 개선 속도 조절"은 '누가 AI의 발전 속도를 결정할 것인가': 업계 기업들의 규제 설계 선점 움직임
- 첫 번째 시사점: 정부가 AI의 안정성 등을 선제적으로 규제할 경우 관련 규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빅테크가 구조적으로 유리
- 두 번째 시사점: 재귀적 자기개선을 우려할 만큼 AI 연구개발 자동화가 빨라지고 있다면 GPU 및 데이터센터 수요 정점 신호가 아닌 사람 대신 컴퓨팅 자원이 AI 연구의 새로운 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음

1. 아모데이가 던진 질문: 누가 AI의 속도를 결정할 것인가

-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는 최첨단 AI 발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발을 중단하자는 것은 아니다. 9월 " We Must Pace the Frontier"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최근 몇 달 사이 AI의 발전 속도가 빨라졌으며, 단순히 안전 연구에 더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델의 개선 속도를 조절해 안전성 연구가 향상된 AI를 따라갈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모데이가 지금 속도조절을 주장하기 시작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AI가 다음 AI를 개발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귀적 자기개선(Recursive Self-Improvement, 이하 RSI)의 초기 단계로 해석했다. AI가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다음 세대 AI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성능이 향상된 AI 가 더 뛰어난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급격한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이 가능해진다. 아모데이는 이러한 변화가 올해 여름을 전후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 오픈AI와 허깅 페이스 사건도 문제로 들었다. 여러 AI 에이전트가 평가 과정에서 지시받지 않은 외부 대상에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자신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채점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행동까지 보였다고 한다. 현재 모델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해 자체보다, 같은 행동을 훨씬 높은 능력을 가진 모델이 수행할 경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이번 발언은 먼 미래의 추상적인 AI 위험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최근 실제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예상 밖 행동도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 앤트로픽 내부 데이터에서도 AI가 AI 연구개발 과정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한 흔적이 확인된다. 2026년 5월 기준 앤트로픽 코드베이스에 병합된 코드의 80% 이상을 클로드가 작성했다. 2분기 엔지니어 1인당 하루 병합 코드 라인 수는 2024년 대비 약 8배로 증가했다. 다만 앤트로픽은 코드 라인 수가 실제 생산성 향상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METR의 50% 성공확률 기준으로 클로드가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작업의 인간 기준 소요시간도 2024년 3월 약 4분에서 2025년 약 1시간 30분, 2026년 약 12시간으로 늘어났다.

2. AI 안전론은 규제 설계권 경쟁으로 이동

- 선두 AI 기업들은 자신들이 참여하는 규제체계를 먼저 제안하기 시작했다. 7월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는 최첨단 AI 모델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정부가 직접 AI에 대한 모든 규칙을 만들고 운영하는 전통적인 규제 기관이 아니다. 업계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독립적인 기술 전문가들이 운영할 것을 구상했다. 연방 정부는 기구를 감독하는 형태다. 미국 금융산업의 자율규제 기구인 금융산업규제국(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이하 FINRA)의 AI 버전이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HD현대중공업 (329180.KS)	9/14	479,000	479,000	0.00%	• 고선가 선박의 매출 인식 확대와 생산성 개선에 힘입어 조선·엔진 부문 수익성 상승 • 상선 중심의 기존 사업에 더해 함정·방산, 발전엔진·원전 등으로 사업 영역 확대
삼성SDI (006400.KS)	9/14	545,000	532,000	-2.39%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률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SK이노베이션 (096770.KS)	9/14	144,800	136,700	-5.59%	• 정제마진 회복과 윤활유 사업의 견조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의 실적 기대 • SK온의 유럽 판매 회복과 북미 ESS 배터리 공급 확대가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부각
한화생명 (088350.KS)	9/14	5,990	6,020	0.50%	• 중장기납 종신보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신계약 수익성 크게 개선 •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에 따른 주주환원 불확실성 완화 기대
오리온 (271560.KS)	9/14	119,300	115,300	-3.35%	• 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 • 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
DL이앤씨 (375500.KS)	9/14	85,800	85,700	-0.12%	• 주택 부문의 높은 마진과 원가율 개선을 바탕으로 양호한 수익성 지속 기대 • 하반기 데이터센터 약 2조원·플랜트 약 2.5조원의 수주 파이프라인 기대
대한해운 (005880.KS)	9/14	2,090	2,090	0.00%	• 포스코·한국가스공사 등과의 장기운송계약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실적과 현금흐름 기대 • 재무구조 개선과 3,5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기반으로 추가 장기계약 수주 여력 충분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9/14	157,000	155,500	-0.96%	•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RFHIC (218410.KQ)	9/14	48,800	49,600	1.64%	• 방산 매출 확대와 RF머트리얼즈 실적 호조로 이익 성장세 지속 • 미국 Upper C-band 주파수 경매와 국내 5G SA·6G 투자 재개가 중장기 성장 모멘텀
인텔리안테크 (189300.KQ)	9/14	63,400	63,800	0.63%	• 저궤도 위성 안테나·게이트웨이 중심으로 사업 구조 전환 가속화 • 북미 공장 가동과 글로벌 Top-Tier 고객사향 게이트웨이 공급 확대가 추가 성장동력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96%	+2.30%p	+75.31%	+15.8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GS건설 (006360.KS)	9/14	38,500	36,650	-4.81%	• 건축·주택 원가율 정상화와 비용 선반영 효과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 하반기 데이터센터 수주 가능성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높일 핵심 모멘텀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9/14	157,000	155,500	-0.96%	•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SK하이닉스 (000660.KS)	9/7	1,647,000	1,697,000	3.04%	•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 자기주식 취득만 40조원이면 긍정적. 추가 주주 환원도 대기
S-Oil (010950.KS)	8/31	149,200	148,600	-0.40%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코스맥스 (192820.KS)	8/24	271,000	276,000	1.85%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137,000	3.65%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532,000	15.90%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률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6,040	0.00%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중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337,000	17.08%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풍산 (103140.KS)	8/3	71,200	78,400	10.11%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81,600	-1.52%	•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310,000	17.07%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7.06%	+1.14%p	+40.16%	-19.3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AI테크TOP10 (485540)	2026.07.16	16,205	14,605	-9.9%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37,810	27.9%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TIGER 글로벌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6,795	-8.9%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AI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18,980	-18.2%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RISE AI전력인프라 (0101N0)	2026.08.28	20,520	19,865	-3.2%	• 국내 AI 전력 생태계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ETF로 발전 설비뿐 아니라 송배전, 데이터센터 후공정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반을 커버 •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473640)	2026.08.28	36,855	33,965	-7.8%	• 글로벌 우량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 금 현물 투자와 달리 편입 기업들의 배당 지급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금 채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부각될 전망
TIME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17,935	-15.8%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ACE 고배당주Plus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335	-6.5%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0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24	84.57	12.4%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44	96.85	-1.6%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89.13	0.8%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의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CI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94.40	1.4%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568.53	74.3%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PAVE (미국 인프라)	2026.08.24	56.39	54.08	-4.1%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80.78	-1.0%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56.20	0.0%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13	9.14	9.15	9.16	9.17	9.18	9.19
	▪ 일본 7월 설비가동률 (0.5%, 이전치 4.1%) ▪ 일본 7월 광공업생산 (3.9%, 이전치 4.1%)	▪ 한국 8월 수출물가지수 (E --, 이전치 49.1%) ▪ 한국 8월 수입물가지수 (E --, 이전치 18.7%) ▪ 중국 8월 소매판매 (E 0.8%, 이전치 0.6%) ▪ 중국 8월 광공업생산 (E 4.8%, 이전치 4.5%) ▪ 유로존 9월 Zew 서베이 (E 40.0, 이전치 31.4)	▪ 일본 7월 핵심기계수주 (E -1.2%, 이전치 9.7%) ▪ 미국 8월 소매판매 (E 0.8%, 이전치 -0.6%) ▪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E --, 이전치 35)	▪ 미국 9월 기준 금리 (E 3.75%, 이전치 3.75%) ▪ 유로존 8월 CPI (E 3.3%, 이전치 3.3%) ▪ 영국 9월 기준 금리 (E 3.75%, 이전치 3.75%) ▪ 미국 8월 주택착공건수 (E 6.9%, 이전치 -12.4%) ▪ 미국 8월 미결주택매매 (E 0.0%, 이전치 -2.3%)	▪ 한국 8월 PPI (E --, 이전치 7.7%) ▪ 일본 9월 기준 금리 (E 1.25%, 이전치 1.0%) ▪ 일본 8월 CPI (E 2.0%, 이전치 1.9%) ▪ 미국 8월 광공업생산 (E 0.3%, 이전치 0.2%) ▪ 미국 8월 선행지수 (E 0.2%, 이전치 0.2%)	
9.20	9.21	9.22	9.23	9.24	9.25	9.26
	▪ 중국 9월 기준금리 (E 3.0%, 이전치 3.0%)	▪ 유로존 9월 소비자기대지수 (E --, 이전치 -15.5) ▪	▪ 한국 9월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 유로존 9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 유로존 9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	▪ 일본 9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 일본 9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 미국 8월 신규주택매매 (E --, 이전치 --)	▪ 미국 8월 내구재 주문 (E --, 이전치 --) ▪ 미국 9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